

# 2024학년도 2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2024-2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이름	박희수
전공	기업경영학부
학번	20242930
참여 프로그램	<input checked="" type="checkbox"/> 1-on-1코칭 (교회성) <input type="checkbox"/> 글말특강 (-회차)

1학년 1학기였던 24년 1학기 글말교실 - 특강에 참여한 뒤 코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번 학기인 1학년 2학기, 글말교실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만 수강하였던 지난 학기와 달리 좀 더 깊게 배우고 싶어 컨설팅에 참여하였으며, 고희성 교수님께 과제물에 대한 글 첨삭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과제물을 제출하는데 도움을 받는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고 코칭을 신청하였고, 그래서인지 처음 글 초안을 보낼 때에도 큰 고민 없이 초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글에 대하여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외래어 표기나 글에 제시하는 그림이나 표와 같은 첨부 문서 등 아예 생각 해보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글의 기본부터 짚어 주셔서 단순히 일회성 코칭이 아닌 정말 좋은 글을 적는 방법을 잘 알려주려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저는 글을 쓸 때 적고 싶은 말이 많아 주제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정리된 글을 잘 적지 못했는데, 교수님께서 정확히 어떤 문단을 수정하는 것이 좋고 어떤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지 알려주셔서 좀 더 정리된 글을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에 대한 피드백도 너무 감사했으나 의도치 않게 다른 것도 배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과는 메일을 통해 문서를 보내고 피드백 일정을 잡게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짧은 메일 안에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정리된 글을 보고 메일을 적는 법까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다정하신 여투가 너무 존경스러웠던 기억이 남습니다.

글말교실 코칭에 참여하게 되면서 오히려 참여하기 전보다 글을 더 잘 쓰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알게 되고 글을 수정하는 과정 속에서 더 스스로를 피드백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며, 여태까지의 글들이 너무 정돈되지 못한 글이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리나 그림 없이 글로만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직은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바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전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읽어보는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글말교실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주변 학우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이 부분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학기에는 주변 학우들과 함께 특강도 듣고 코칭도 받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 학기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2930 박희수